



제04호 / '16.5.13(금)

지부교섭 속보

기본급 152,050원 인상!
취업규칙 개악 저지!
노동자 건강권 쟁취!
일반해고 금지!
조합활동시간 보장!

발행처: 선전부 | 발행인: 김정태 | 주소: 충북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3060번지 근로자복지회관 2층 | 전화: 043-236-5077 | http://dc.kmwu.kr

4차 교섭, 지부 요구안 설명

어려운 경제여건, 공생의 길 찾아야

5월 12일(목) 15시, 대한이연에서 4차 지부교섭이 열렸다. 이날 노사 양측 교섭대표의 모두발언은 경제 불황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됐다. 사측 대표로 발언한 대한이연 안기성 전무는 “최근 노동개혁, 조선업종 구조조정 등 어려운 경제 여건에서 기존의 방식을 탈피하는 교섭이 되길 바란다”는 뜻을 밝혔다. 김정태 지부장은 “기업이 이익날 땐 주주가 다 가져가고, 회사가 잘못해서 망하면 노동자 희생과 세금으로 해결하는 방식을 벗어나야 한다. 공생할 수 있는 내용을 만드는 자리를 만들자”고 제안했다.

요구안 신중히 검토해야

본격적인 교섭으로 들어가서 지부 요구안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다. 지부 박윤중 사무국장은 요구안이 제안된 배경과 타 지부 현황 등을 꼼꼼히 설명했다.

먼저, 2016년 임금인상 요구는 기본급 152,050원 인상이다. 물가상승율(1.4%), 경제성장율(3.0%), 금속노조 표준생계비(평균 3.7인 6,321,937원) 등을 고려해 결정했다. 금속노조 임금평균(고정급여)이 4,357,072원인데, 요구안대로 인상될 경우 표준생계비의 74.08% 수준이 된다.

두 번째, 취업규칙 및 제규정 개정 절차 요구안이다. 개정 단협에 체결되면 즉시 취업규칙, 사규 등 제 규정을

단협 내용으로 개정하라는 요구이다. 또한 제 규정을 변경할 때 단협 및 기존 합의서 내용을 준수하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. 더불어 취업규칙 변경을 위해 조합원 개별동의를 받지 않도록 요구했다. 작년에 이미 경기, 광주, 대구, 부산양산, 서울, 충남지부에서 합의한 내용이다.

세 번째, 노동자 건강권이다. 산재신청 후 승인 전까지 요양 및 휴업급여를 지급하라는 것이다. 승인될 경우 지급받은 급여는 환입하고, 불승인 시에는 환입하지 않도록 했다. 산재 불승인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산재신청을 꺼리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내용이다. 또 산재자 재활치료 후 현장복귀 프로그램을 최소 2주 이상 운영하도록 요구했다.

네 번째, 일반해고 금지 요구다. 가장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 내용으로 조합원 상대로 해고를 전제로 한 일체의 업무(성과)평가를 실시하지 않도록 했다. 업무(성과)평가를 근거로 배치전환, 업무재배치, 교육, 노동조건 저하 등을 할 수 없도록 했다.

다섯 번째, 조합활동 요구이다. 지부 총회 상, 하반기 각 4시간, 교섭기간(상견례부터 조인식까지) 교섭위원 유급 전임활동 보장, 위원장 또는 지부장 명의 공문 시행시간부 교육 및 회의시간 보장을 요구했다.

차기 교섭에서 요구안에 대한 자세한 질의응답이 이어질 예정이다.

4차 교섭 속기록

경제불황, 공생 방법 찾는 교섭되길

사 : 대한이연에서 2016년 지부교섭 처음 실시하는데 대표이사가 사전에 약속이 잡혀 해외 장기출장으로 오늘 교섭 참석 못해 죄송하다. 최근 노동개혁, 조선업종 구조 조정 등 경제여건이 상당히 안 좋다. 젊은 친구들이 취업을 못해 애로사항이 있다. 어려운 상황에서 금년 교섭을 하다보니 매년 하던 방식을 탈피해서 노사가 진지하게 회사의 존재와 고용안정을 유지하면서 어떻게 성장을 할 지 고민하는 교섭이 되면 좋겠다.

노 : 올해 경제성장률이 2%대로 내려갈 것 같다고 한다. 한국경제가 장기 불황에 들어서는 구조적인 부분이 있다. 이 부분을 단지 노동자에게 전가할 문제는 아니다. 기업이 이익날 때는 주주가 다 가져가고 회사가 잘못해서 망하면 노동자 희생, 세금으로 해결하는 방식을 벗어나야 한다. 올해 교섭은 그런 부분에서 탈피해서 공생할 수 있는 내용을 만드는 자리가 되면 좋겠다. 오늘 요구안 설명을 잘 듣고 판단했으면 좋겠다.

지부 요구안 설명하겠다. 사전에 드려서 많이 점검해봤을텐데 간략히 설명하고 차기 교섭에서 질의응답 받겠다.

2016년 임금인상 요구는 물가상승율, 경제성장율, 표준생계비를 고려하고, 현장 설문조사 의견수렴을 통해 152,050원 정액 인상을 요구한다.

두 번째는 취업규칙 및 제 규정 개정절차에 대한 요구다. 단체협약 체결시 취업규칙 등 제 규정을 단협 내용으로 수정한다는 것이다. 제 규정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기존 단협 및 합의서 내용을 준수한다는 것이다. 그리고 취업규칙 변경을 위한 개별동의를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. 이 내용은 이미 2015년에 경기, 경주, 부산양산, 서울, 충남 지부에서 합의된 사항이다. 사용자협의회에서도 자문받아 보시면 알겠지만 문제 없을 것 같다.

세 번째는 건강권 요구다. 산재승인 받기 전까지 요양

및 휴업급여를 지급하라는 것이다. 산재승인되면 받은 금액을 환입하고, 불승인되면 환입하지 않는다. 산재를 고의적으로 은폐한 담당자는 문책하고, 산재자 재활치료 후 현장복귀 프로그램을 2주 이상 운영하라는 요구다.

네 번째는 일반해고 금지사항이다. 대대적으로 이슈화되고 있다. 조합원 상대로 해고를 전제로 하는 일체의 업무(성과)평가를 실시하지 않는다는 요구다. 또한 조합원의 동의없이 배치전환, 업무재배치, 교육 등을 실시하지 않고 노동조건을 저하시키는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. 현행상 개인의 큰 잘못이 있는 경우 징계해고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일반해고를 다룰 필요가 없다.

다섯 번째는 조합활동으로 지부 총회시간 상, 하반기 각 4시간을 요구한다. 또 교섭위원회에 대해 교섭시간(상견례부터 조인식까지) 전임활동을 유급으로 보장하라는 요구다. 그리고 노조 위원장이나 지부장 명의의 공문 시행시간부 회의, 교육 시간을 보장하라는 것이다. 각 사별로 단협이 상이한 것을 일치시키는 요구안이다.

사회 : 오늘 요구안 설명 듣고 마무리하기로 했는데, 추가적으로 할 말 있나?

사 : 없다.

노 : 조합 측에서 6월 2일과 9일 행사가 있어서 교섭시간 변경을 요청드렸다. 실무에서 정리하자.

사회 : 오늘 교섭 마치겠다. 차기 교섭은 5월 19일(목) 15시 JCC에서 하겠다.